

충북사회복지 Re-연구 제33호

# 가족에 대한 충북도민의 인식

## 01 서론

### 1. 주제: 가족에 대한 충북도민의 인식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제3조 3항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센터기능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연구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5월 가정의 달 및 5월21일 부부의 날에 따라 가족에 대한 충북도민의 인식수준을 연구 주제로 선정

### 2. 목적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조사 결과(통계청, 2016, 2018) 및 「충북도민 가족에 대한 인식 조사(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2018, 2019)를 토대로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고자 함. 또한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설문개요

- 연구내용: 충북도민 대상 가족인식 조사결과 비교 및 분석
- 설문기간: 2020. 2. 7.(금)~2. 18.(화) 총 12일
- 조사대상: 충북도민 271명
- 조사방법: 온라인(E-mail, SNS, 문자)과 오프라인(설문지) 설문 병행조사
- 표본추출: 임의표본추출
- 표본오차: 표본오차(SE : Sampling Error) 95%의 신뢰수준에서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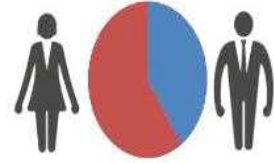
## 02 연구결과

### 1. 설문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271명)

#### 1) 지역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83명 (30.6%)	19명 (7.0%)	21명 (7.8%)	15명 (5.5%)	19명 (7.0%)	18명 (6.6%)	19명 (7.0%)	17명 (6.3%)	20명 (7.4%)	23명 (8.5%)	17명 (6.3%)
157명(57.9%)					54명(19.9%)			60명(22.2%)		

## 2) 연령 및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42명 (15.5%)	77명 (28.4%)	84명 (31.0%)	50명 (18.5%)	18명 (6.6%)

여성	남성
171명 (63.1%)	100명 (36.9%)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남성	15명 (5.5%)	30명 (11.1%)	32명 (11.8%)	15명 (5.5%)	8명 (3.0%)	100명 (36.9%)
여성	27명 (10.0%)	47명 (17.3%)	52명 (19.2%)	35명 (12.9%)	10명 (3.7%)	171명 (63.1%)
합계	42명 (15.5%)	77명 (28.4%)	84명 (31.0%)	50명 (18.5%)	18명 (6.6%)	271명 (100.0%)

## 3) 결혼

구분	미혼	기혼	합계
남성	33명 (12.2%)	67명 (24.7%)	100명 (36.9%)
여성	47명 (17.3%)	124명 (45.8%)	171명 (63.1%)
합계	80명 (29.5%)	191명 (70.5%)	271명 (100.0%)

## 4) 직장유무

구분	직장 있음	직장 없음	합계
남성	87명 (32.1%)	13명 (4.8%)	100명 (36.9%)
여성	146명 (53.9%)	25명 (9.2%)	171명 (63.1%)
합계	233명 (86.0%)	38명 (14.0%)	271명 (100.0%)

## 2. 연구결과 요약정리



본 결과는 충북도민 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충북 전체로 일반화 할 수 없으며,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연구 배경 및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양의식 등 가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향후 추진전략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 개요

- 연구대상 : 충북도민 271명
- 표본추출 : 임의표본추출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5.95%

## 가족에 대한 충북도민의 인식

치매환자 부양에 대한 견해  
1순위 '시설에서 모신다'  
80.4%

-가족구성 중 치매환자에 대한 부양의식을 묻는 질문에 '시설(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시설)에서 모신다' 80.4%로 1순위로 나타남

노인부양 책임 '가정책임, 국가 경제적 지원' 70.5%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은 '가정에서 주된 책임,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국가, 사회에서 전적으로 책임' 14.4% '가정(자녀모두)의 책임' 11.8%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공평하게 분담'  
76.4%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는 2019년 조사와 비교하여 '공평하게 분담' 64.9%에서 11.5%p 상승한 76.4%로 나타남

결혼에 대한 견해  
'해도 좋고 하지않아도 좋다'  
57.2%

-결혼에 대한 견해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49.1%  
-이혼에 대한 견해는 '상황에 따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57.2%  
-이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67.9%

출산에 대한 견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 38.4%

-출산에 대한 견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 38.4%,  
'꼭 낳지 않아도 된다' 31.0%. '꼭 낳아야 한다' 18.5%.  
-출산 기피 1순위 '아이를 낳지않아도 된다는 인식 때문에' 28.8%

입양에 대한 견해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 적극 고려'  
30.3%

-입양에 대한 견해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 적극 고려해보겠다' 30.3%.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 26.6%

### 3. 세부 연구결과

#### 1)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 질문 1. 귀하의 가족 구성원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구 분	2019년	2020년
<b>시설(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시설)</b>	<b>69.8</b>	<b>80.4</b>
집에서 모신다	10.8	11.4
잘 모르겠다	19.3	8.1
합계	100.0	100.0



치매환자 부양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시설(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시설)'이라는 응답이 80.4%로 가장 높았으며 '집에서 모신다' 11.4%, '잘 모르겠다' 8.1%로 나타났다. 2019년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시설(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시설)'이라는 응답이 10.6%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치매환자가 있다면 '시설에 모신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 치매환자의 부양에 관한 인식 '시설(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시설)' 모신다는 의견' 매년 증가



- 치매환자 부양에 대한 질문에 집에서 모신다는 의견 11.4%, 시설에서 모신다는 의견이 80.4%로 사회적으로도 치매는 가족구성원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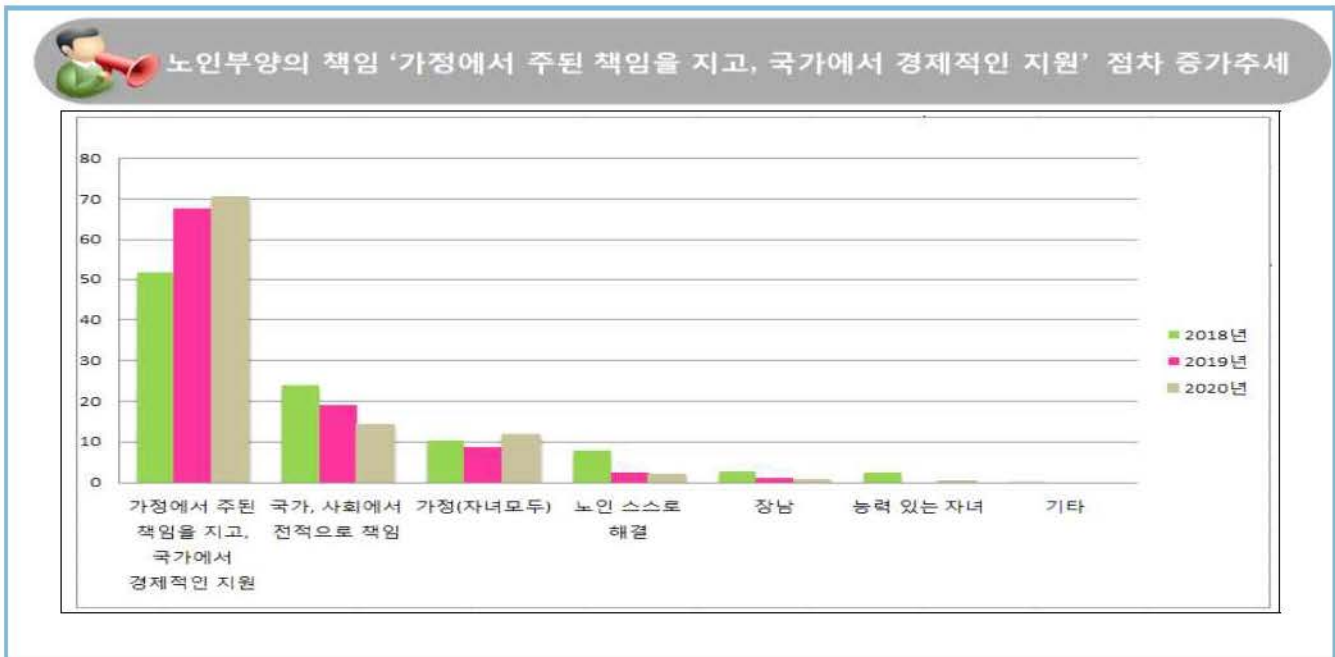
(단위: %)

**질문 2. 귀하는 노인부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b>가정에서 주된 책임을 지고,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b>	<b>51.7</b>	<b>67.9</b>	<b>70.5</b>
국가, 사회에서 전적으로 책임	24.0	19.0	14.4
가정(자녀모두)	10.3	8.9	11.8
노인 스스로 해결	7.9	2.6	2.2
장남	2.9	1.3	0.7
능력 있는 자녀	2.5	0.3	0.4
기타	0.7	0.0	0.0
합계	100.0	100.0	100.0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가정에서 주된 책임을 지고,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이 7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국가, 사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14.4%, '가정(자녀모두)'가 11.8%, '노인 스스로 해결' 2.2% '장남'이 0.7%, '능력 있는 자녀' 0.4%, '기타' 0.0%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가정에서 주된 책임을 지고,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이 2.6%p으로 소폭 상승한 70.5%로 나타났고, '국가, 사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4.6%p 하락한 14.4%, '가정(자녀모두)' 2.9%p 상승한 11.8%, '노인 스스로 해결' 0.4%p 하락한 2.2%, '장남' 0.6%p 하락한 0.7% '능력 있는 자녀' 0.1%p 상승한 0.4%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를 통해 노인의 부양에 대해 가정에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 2)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단위: %)

질문 3. 귀하는 가사분담(식사준비, 설거지, 세탁, 집안청소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4.3	3.8	0.3	0.7
여성이 주로 하고 남성도 분담해야 한다	39.5	34.6	32.8	19.9
<b>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b>	<b>53.5</b>	<b>59.1</b>	<b>64.9</b>	<b>76.4</b>
남성이 주로 하고 여성도 분담해야 한다	2.1	1.9	1.3	2.6
남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0.6	0.6	0.7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가사 분담에 대해 묻는 질문에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76.4%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여성이 주로 하고 남성도 분담해야 한다' 19.9%, '남성이 주로 하고 여성도 분담해야 한다' 2.6%,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0.7% '남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0.4%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자료와 비교했을 때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11.5%p 상승한 76.4%로 나타났고 '여성이 주로 하고 남성도 분담해야 한다'는 12.9%p 하락한 19.9%, '남성이 주로 하고 여성도 분담해야 한다'는 1.3%p 하락한 2.6%,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0.4%p 상승한 0.7%, 마지막으로 '남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0.3%p 하락한 0.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단위: %)



전 연령층 가장 많은 응답을 가사분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구분	가사분담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
20대 (연령 중 %)	90.5
30대 (연령 중 %)	80.5
40대 (연령 중 %)	77.4
50대 (연령 중 %)	68.0
60대이상 (연령 중 %)	44.4
합계	100.0



-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를 묻는 답변을 연령별로 재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이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답변이 높아졌음.

### 3) 결혼·이혼·재혼·졸혼에 대한 견해

(단위: %)

#### 질문 4.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반드시 해야 한다	12.5	11.1	10.5	11.8
하는 것이 좋다	39.3	37.0	30.8	33.2
<b>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b>	<b>42.9</b>	<b>46.6</b>	<b>52.5</b>	<b>49.1</b>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5	2.5	3.6	3.7
하지 말아야 한다	0.6	0.5	0.7	1.1
잘 모르겠다	2.2	2.3	2.0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4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하는 것이 좋다' 33.2%, '반드시 해야 한다' 11.8%,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7%, '하지 말아야 한다' 1.1%, '잘 모르겠다' 1.1%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3.4%p 하락한 49.1%로 나타났으며 '하는 것이 좋다' 2.4%p 상승한 33.2%, '반드시 해야 한다' 1.3%p 상승한 11.8%, '하지 않는 것이 좋다' 0.1%p 상승한 3.7%, '하지 말아야 한다' 0.4%p 상승한 1.1%, '잘 모르겠다' 0.9%p 하락한 1.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이 가장 높으나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2019년에 비해 2.4%p 높게 나타났다.





(단위: %)

**질문 5. 귀하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9.5	7.7	4.6	7.7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	30.0	25.5	21.0	17.3
<b>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b>	<b>43.1</b>	<b>46.3</b>	<b>56.4</b>	<b>57.2</b>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14.0	16.7	16.1	17.0
잘 모르겠다	3.4	3.8	2.0	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이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5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 17.3%,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17.0%,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7.7%, 마지막으로 '잘 모르겠다' 0.7%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0.8%p 상승한 57.2%로 나타났고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 3.7%p 하락한 17.3%,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0.9%p 상승한 17.0%,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4.9%p 상승한 7.7%, 마지막으로 '잘 모르겠다' 0.3%p 하락한 0.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중립적인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7.3%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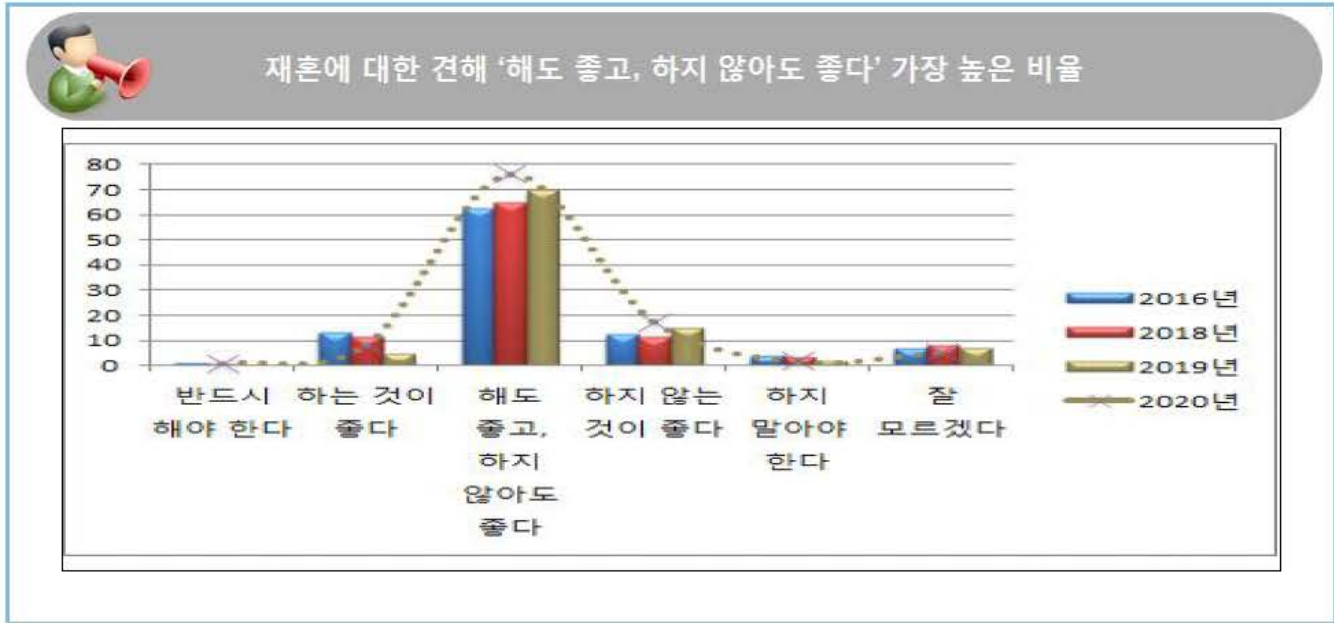
**질문 6. 귀하는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반드시 해야 한다	1.0	0.8	0.7	0.7
하는 것이 좋다	13.2	11.6	4.9	8.1
<b>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b>	<b>62.4</b>	<b>64.6</b>	<b>69.8</b>	<b>76.0</b>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2.5	11.5	15.4	17.3
하지 말아야 한다	3.9	3.4	2.0	1.5
잘 모르겠다	6.9	8.1	7.2	5.2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재혼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7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3%, '잘 모르겠다' 5.2%, '하는 것이 좋다' 8.1%, '하지 말아야 한다'

1.5%, '반드시 해야 한다' 0.7%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6.2%p 상승한 76.0%,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9%p 상승한 17.3%, '하는 것이 좋다' 3.2%p 상승한 8.1%, '잘 모르겠다' 2.0%p 하락한 5.2%, '하지 말아야 한다' 0.5%p 하락한 1.5%, '반드시 해야 한다' 0.7%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중립적인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질문 7. 귀하는 졸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2020년
반드시 해야한다	0.7
하는 것이 좋다	7.4
<b>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b>	<b>67.9</b>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3
하지 말아야한다	1.5
잘 모르겠다	5.2
합계	100.0



졸혼(卒婚)은 정해진 법적 기준이 없는 부부간의 합의로서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졸혼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6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

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3%, '하는 것이 좋다' 7.4%, '잘 모르겠다' 5.2%, '하지 말아야 한다' 1.5%, '반드시 해야 한다' 0.7%로 나타났다. 출혼에 대한 견해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 4) 출산 및 입양에 대한 견해

(단위: %)

##### 질문 8. 귀하는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2020년
매우그렇다	18.5
<b>그렇다</b>	<b>38.4</b>
그렇지않다	31.0
전혀 그렇지않다	7.7
잘 모르겠다	4.4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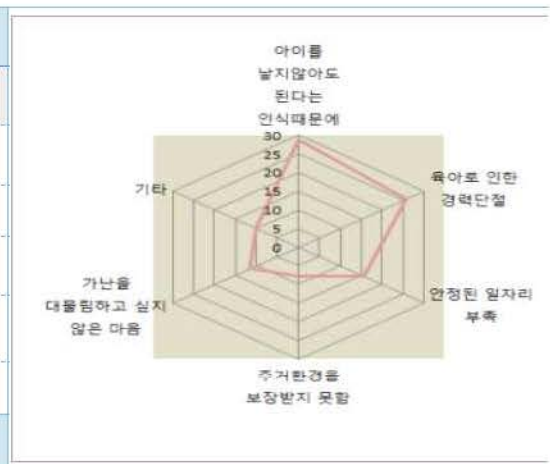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렇지않다' 31.0%, '매우그렇다' 18.5%, '전혀 그렇지않다' 7.7%, '잘 모르겠다' 4.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아이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38.7%, '긍정적인 의견' 56.9%로 '긍정적인 의견'이 18.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질문 9. 귀하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2020년
<b>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때문에</b>	<b>28.8</b>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25.9
안정된 일자리 부족	15.8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함	7.9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마음	11.5
기타	10.1
합계	100.0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때문에'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25.9%, '안정된 일자리부족'이 15.8%,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마음' 11.5%, '기타' 10.1%,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함' 7.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살펴보면 저출산 원인 중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추후 저출산 대책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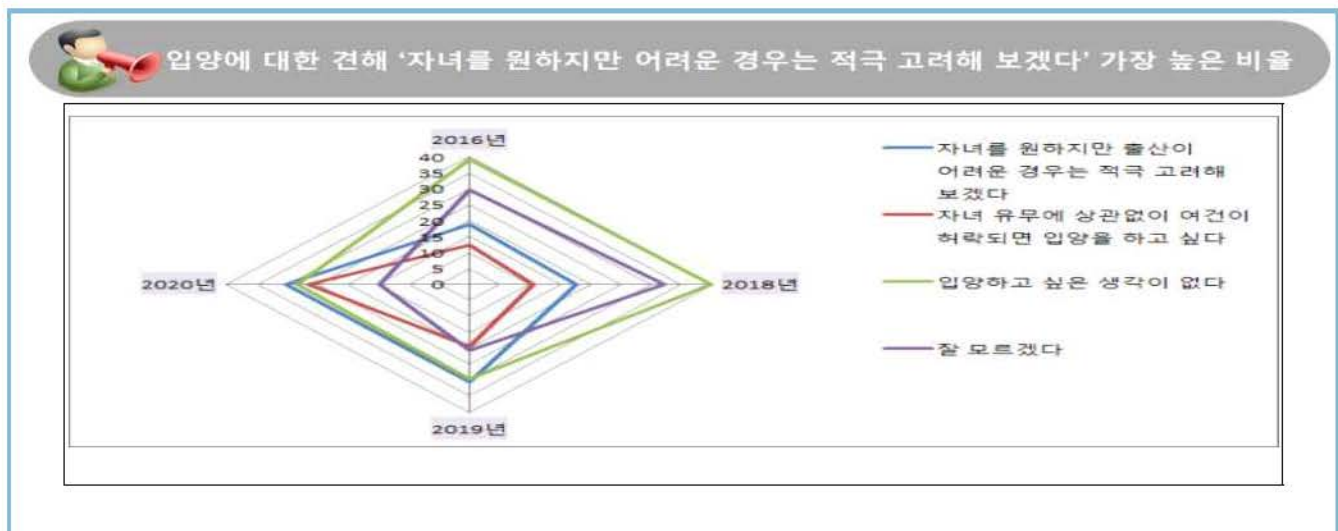
(단위: %)

**질문 10. 귀하는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b>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 보겠다</b>	<b>18.9</b>	<b>17.5</b>	<b>30.5</b>	<b>30.3</b>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	12.3	10.5	19.3	26.6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39.3	39.9	29.5	<b>28.4</b>
잘 모르겠다	29.5	32.1	20.7	14.8
합계	100.0	100.0	100.0	100.10

입양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 보겠다' 3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28.4%,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 26.6%, '잘 모르겠다' 14.8%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 보겠다' 0.2%p 하락한 30.3%로 나타났으며,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1.1%p 하락한 28.4%,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가 7.3%p 상승한 26.6%, '잘 모르겠다'가 5.9%p 하락한 14.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56.9%, 부정적인 의견은 28.4%**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사회조사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참고문헌

- 2016년 사회조사, 통계청
- 2018년 사회조사, 통계청
- 2018년 연구조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 2019년 연구조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